목회자 칼럼

영적 성장의 단계

강정호 목사

영적 성장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마 5:48)'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바울도 영적 성장의 목표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엡 4:13)',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엡 4:15)'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영적 성장에 평생을 바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단계와 과정을 대략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회심 체험입니다. 회심 체험이란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아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깨지게 되면서 새로운 자아로 눈뜨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이 자신 밖의 넓은 세계, 즉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회심 체험은 개인의 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정화(淨化-purification)와 초탈(超脫-detachment)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큰 종교적 체험이나 회심 체험을 하고 속죄와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탐욕, 위선, 미움, 교만, 이기심 등 죄의 씨앗과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의 전(全) 존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게 되지 못했고, 주님처럼 성화(聖化)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의롭고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제시하는 영혼의 정화와 초탈에 이르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철저한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입니다(마 16:24).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영혼의 조명 단계입니다. 영혼의 조명이라 함은 철저한 자기 포기와 초탈로 인해 영혼이 정화되고 순수해진 결과로 우리의 자아, 지성, 영혼이 밝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폐쇄된 자아와 미천한 이성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 버리고, 하나님의 실재와 창조 세계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단계입니다.

영적 성장의 네 번째 단계는 일치의 삶 단계입니다. 일치의 삶이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과 온전히 합일, 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단계이며 내가 모든 사람들, 피조물들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되는 단계입니다. 어떠한 대립이나 불일치가 다 사라진 단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지배되는 삶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와 '자유'를 맛보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영원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그리고 용기있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치와 합일의 삶이야말로 주님 이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망했던 영적 성장의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성장의 단계는 어디쯤인지 돌이켜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가치로운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초보'의 딱지를 떼어버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도록 하십시다.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4호 (격월간)
발행일 2000년 5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영적 성장의 단계 / 강정호 목사
2
주님의 사랑이 / 조명혜 집사
3~5
특집 /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6
뭔가 달라져야지요 /
이충길 안수집사
공중예배 기도에 대하여
7
신앙 클리닉
비디오 감상 / 엄혜숙 집사
의학상식 / 한형장 집사
8
시 / 김라경(청년부)
여행상식 / 하승락 안수집사
그림 / 탕자의 귀향
예배안내

섬김의 삶

주님의 사랑으로

조명혜 집사(62구역)

저는 서울대학병원 샬롬 호스피스팀의 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97년 5명의 봉사자로 팀을 구성하면서(현재는 20명의 봉사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봉사의 장에 들어섰습니다.

주위분들로부터 열심히 봉사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부모님 때 선교사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가정의 3대손이지만 부모님께서 교회생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교회와는 별 인연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추첨으로 들어간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것이 인연이 되어 동네 언니들을 좇아 비로소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적을 두고, 주 안에서 느낀 막연한 기쁨만을 간직한 채 80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두 딸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보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생활했으나 잃어가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며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삶의 새로운 갈망과 함께, 85년 처음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했고, 성경을 읽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죽음을 앞에 둔 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설명을 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노라는 생각으로 환자 앞에 섰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난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의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무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전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 앞에서 나는 무력감에 빠져들었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발견한 것은 내가 그분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어도 난 이런 모습은 아닐거야' 하는 오만함으로 다가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겠노라 했던 처음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일주일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봉사의 장에 서기 위해 나와 다투어야 했습니다.

불치의 병을 얻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환자를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진리 앞에 서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가족과 이웃에 얽혀 있는 사회적 고통,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 고통 등이 사람이기에 느끼는 삶의 무게인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짐을 벗기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졌었노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내가' 하며 부르짖다가 결국엔 그 앞에 순응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전달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삶을 인정하며 이것은 다른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동인이 되어 고통 속에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마지막을 가족들과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화목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죽음에 초점을 둔 깨달음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삶의 초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배운 것은, 매일매일을 맺힌 것 없이 사는 것과 맺힌 것을 풀면서 사는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환자분과 그의 가족들 사이에 함께 하면서 배운 섬김의 모습은 잠잠히 함께 있어 주는 것이며 나의 필요가 아닌 그분들의 실제적 필요를 좇아 움직여 주는 것인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가장 실제적 필요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제가 먼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덧입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 교회사무실
T. 416-5181~2 F. 416-5180

특집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김자성 집사(20구역)

우리 어머니는 누워 계신다. 거의 20년 가까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 계신다. 그래도 78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가 곱고 예쁘시다. 남편과 나는 주일날이면 별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담동으로 향한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하며 방안에 들어선다. 어머니는 희미한 웃음으로 "어서 와라" 말씀하신다. 나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발치에 앉아 벽에 기댄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TV도 같이 보며 웃기도 한다. 가끔 찬송가도 같이 부른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초밥을 사가지고 가면 너무나 맛있게 잡수셨다고 몇 번씩 인사 치레를 하신다. 종종 예전 힘들었을 때 얘기를 하신다. 이북에서 피난나올 때 얼마나 고생하셨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로 속상하셨던 얘기를 하실 때면 그랬었구나,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하고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어 했을 때가 많았던가. 진작 마음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 낭비한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24살에 시집 와서 만난 어머니는 무섭게만 보였다. 너무나 미인이셨지만 차가우셨고 노여움을 잘 타셔서 겁이 날 때가 많았다. 어머니의 표정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이 쓰였고 조심스러웠다. 왜 그렇게 어머니의 심기가 늘 불편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힘들어 했다. 내향적인 성격이었고 내 속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 게다가 속이 좁아 남의 아픔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 그저 보이는 것으로 해서 속상해했고 그 보는 것도 극히 내 위주였다. 종합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전혀 없었다. 예의에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렵기만 한 어머니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들이란 어머니를 섭섭하게 했으리라고 이제야 생각된다. 그때는 어머니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러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절망스런 한계에 부딪쳤고 속에 감추어진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겉으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부끄러워 감추려고 했는데, 무죄한 피를 흘린 나 혼자만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밤마다 시편을 읽을 때면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 1987년말,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온 순간이었다. 햇빛 가득한 들판으로,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도대체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한 심령이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며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하나님 없이 산 삶이 문제였다. 그 이후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물론 어머니를 대하는 나의 마음도 달라졌다. 어머니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전에는 많은 것을 했어도 사랑없이 억지로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그마한 것도 사랑으로 하며 기쁘다. 전혀 사랑이라고는 할 줄 몰랐던 팔삭둥이 같은 나를 고치셔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십자가가 지붕으로 올라간 까닭은…

박두리 권사(51구역)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기 전까지 남편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가히 극에 달했다고 할 만 했습니다. 퇴근길에 어쩌다 아이들이 이웃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 곧장 불러들여 그런 곳에서는 노는 것이 아니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고, 일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서 꼴불견은 성경책 옆구리에 낀 채 왔다갔다 하는 사내라고 했다. 남편은 어느 모임에서 참석한 분들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조금 길게 설교조의 발언을 계속하자 식사 중인데도 나가라고 해서 그날 모임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30대 후반의 그 시절 직장에서 임금 협의를 마친 후 결과만 발표해도 될 것을 교회에 돈 갖다 주는 짓 하는 사람은 급료 인상에서 제외한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이룬 협상이고 또 한 달 내내 힘들여 일한 그 보수를 10분의 1씩이나 그런 곳에 갖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절은 걸핏하면 야근이고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했기에 교회 나가는 것을 쉬쉬하고 있던 직원들이 남편 등쌀에 꽤나 힘들었다는 것은 한참 뒷날 남편 황집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안 후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그의 내면에서 그런 곳(?)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 조그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전직원 비상근무에 자기 여비서가 늦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과 선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도무지 말 같지 않은 소리였으니 호되게 혼을 내었으나, 얼마 후 남편은 그 여직원이 남편을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간절한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생소했고, 그것도 꾸지람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여직원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 이후로 그녀가 믿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남편의 머리 속을 맴돌며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교회 이야기만 시작하면 세상의 근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표정으로 환하게 바뀌곤 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쩐 일인지 별 주저 없이 그를 따라 교회로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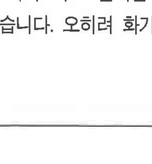
20년 전쯤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처음 가본 교회가 무작정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성가대의 찬양도, 그리고 강대상의 꽃꽂이까지 좋았습니다. 엄숙하나 무겁지 않게 진행되는 예배와, 끝난 후에 이곳 저곳에 둘러서서 정겹게 담소하는 그런 광경들은,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결혼 후의 모든 상황이 결코 교회와는 인연이 없었는데도 뜻밖에 친숙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해가면서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충이라도 하듯 새벽예배 참석을 마음 먹었으나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의 뜻을 전했을 때는 가타부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은 관례대로 허락이니 문제가 없었지만, 꼭두새벽에 일어나 부스럭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이었으나 그것도 의외로 가타부타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밤새 눈이 내려 종아리까지 빠지는 어느 새벽에 집을 나서는 나의 행색이 딱했던지 처음으로 데려다 준다고 나섰습니다. 새벽 첫 버스가 제시간에 와줄까 걱정이었던 터라 몹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추우니까 예배실에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훈훈한 실내여서) 금방 졸음이 쏟아졌고 이내 잠이 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만들고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순간 잠이 깨면서 앞과 뒤는 전혀 생각나는 것 없이 그 소리만 또렷이 귀에 남아서 '나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일 것이라는 생각에 점점 빠져들었으나, 자기 판단이 서기까지는 꿈적도 하지 않는 그의 성격대로 1년여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구역을 통해 참으로 좋은 이웃들과 교분을 나누면서 제 자신은 물론 뒷날 남편의 신앙생활의 길잡이까지 되어 준 그 인연이 지금 주님의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가겠다고 나서기까지 그는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갈등을 거쳤을 것이고 판정이 나자 곧장 실행하였고, 신앙생활 초기의 그는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그 일들을 몹시 부끄러워 하며 주위의 모태신앙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무릎 꿇은 것이 자기가 아니고 예비된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자기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자로부터 원고 청탁이 있었을 때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은 있지만 30여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또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게 된 이 이야기를 해도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습니다(제가 느끼는 것보다 오랜 친구분들이 전해주는 말에서 남편의 변화를 봅니다). 20년 전에 죽마고우 옛 친구가 "너 정말 예수 믿나?"라고 한 말이 이제는 "너 아직도 예수 믿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좌절과 회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부부에게는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그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교회의 지붕으로 올라간 것임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나영일 집사(19구역)

"승훈아! 우리 집이 행복하나?", "응!" "승규야! 우리 집이 행복한 것 같으냐?", "그런 것 같은데.", "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당신은 우리 집이 행복한 것 같아?", "아니!"라고 집사람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불만스러운 표정까지 지으며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남자 세 명은 행복하고 여자 한 명은 정말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는 못했지만 불행하다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최소한 평범한 가정 이상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집 세 남자는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집사람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작년에 교직생활 19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남들은 아내의 재능이 아깝다고 하면서 말렸지만, 집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인 작은 아이와 중3인 큰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집사람은 박사 학위까지 받으면서 주위로부터 많은 능력을 인정 받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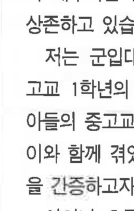
그러나 저희 가정의 철없고, 게으르고, 문제 많은 세 남자는 언제나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작은 아이는 미술을 공부하겠다고 하였고, 큰 아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도전하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가장으로서의 여러가지 역할 및 책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에 교환교수로 가서 혼자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집사람을 위해 저희들은 아무 도움이나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세 남자는 집사람이 집에 있게 된 것이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집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 관계, 경력, 승진의 기회, 개인의 소중한 추억 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집사람은 퇴직을 하고 집안 살림과 아이들과 저의 뒷바라지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은 아이는 예원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큰 아이 역시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있다가 모교인 서울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것이, 가정 경제에는 별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옮기려는 생각을 하였고, 집사람은 그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희 세 남자들에게 있어서 1999년은 자신이 바라던 모든 일이 성취된 한 해였습니다. 세 남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신 것으로만 알고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그늘에 숨기고 세 남자의 뒷바라지만을 위해서 봉사만 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으로 창피할 뿐입니다. 공동체인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집사람을 위해서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사는 것이 가장으로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서로' 하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집사람이 힘들어 할 때 세 남자가 조금씩이라도 힘을 합쳐 집사람을 돌보았다면 집사람의 재능은 벌써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집사람은 서운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의 공동체인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은 한 여자가 세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왜 세 남자가 여자 하나를 제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동안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체'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열심히 사는 것은 물론이요, 가족 구성원끼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가정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세 남자가 말이 아닌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방황 속에 계신 하나님

이진원 집사(62구역)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겪는 갈등은 유아시절 외출복 선택에서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까지 어느 가정이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입대를 얼마 앞둔 대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의 두 아들을 둔 부모로서, 큰 아들의 중고교 시절 학업 성적 부진으로 아이와 함께 겪었던 갈등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가끔 입시 및 학업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의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의 폐단에서 우리 아이들은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맘대로 뛰어 놀고 다소 학업 성적이 뒤쳐져도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믿고 사회 봉사와 인화에 더 가치를 두고 아이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아이는 중위권에서 맴돌고 학업 성적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 아이를 찾아 헤매다 보면 오락실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를 목격하기도 하고, 점점 아이가 동네에서 지경을 넓혀가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가정에 통행금지시간(저녁 9:30)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중 우스운 것은 치킨집이 이사가고 비디오 가게가 새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치킨집 아저씨와의 정 때문에 이사가는 것 도와주느라 늦었다나요. 공부가 재미 없으면 집에서 책이나 다른 놀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불량한 아이들과 사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철저히 귀가시간을 통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통행금지를 넘긴 아이가 꾸중이 두려워 아예 외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 시절 우리 부부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눈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성적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험한 사회에 물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아이에게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잠언과 시편을 한 장씩 읽히고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를 가정에서 품도록 하셨습니다. 또 맑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이를 교회 학교로 부르셨고, 아이는 교회 학교가 성적순이 아니니 편해 했고 그 속에서 신앙을 키워 갔습니다.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이의 승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언제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이 역시 도와주신 하나님을 위해 남달리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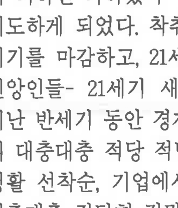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고 또 아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 죄에 빠질 때면 여지없이 아이도 세상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꾸중하는 그 소리는 다 저를 향해 꾸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곤 회개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만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리 부부도 함께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시도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게 귀가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방정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흔들리고 있니? 너는 알지 않니? 그것은 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기고



뭔가 달라져야지요

이충길 안수집사(58구역)

그동안 한국 기독교 교인수는 더 늘어났고 교회는 더욱더 커졌다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옷로비 등 상황이 더하면 더하였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착취, 환경 파괴, 빈부 격차, 분열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특히 신앙인들- 21세기 새 밀레니엄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개발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 적당히 살아왔다. 벼락치기 공부, 군대생활 선착순, 기업에서 밀어붙여 실적 올리기,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히 정말 숨가쁘게 살아온 것이 지난 한 세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자동차로 새벽 공기를 가른다. 일본 사람들은 새벽에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체질화, 습관화 되었다고 한다. 나 역시 유치원에서 교통 안전 교육을 안 받아서인지 성격이 급해서인지 건널목 신호등에서 양쪽에 아무도 없으면 도저히 조급증이 나 견딜 수가 없다. 그냥 가자니 신앙인의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지만, 뒤에 오는 차가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나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다반사이다.

21세기에 버려야 할 것이 이것만이 아니다. 일부 소수이지만 직업에서 선택 받았다는 명목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찬돌이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남이 가지지 않은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거드름 피우거나 물질이 좀 있다고 사치를 부리거나, 학위 취득이나 고학력 졸업장이 있다고 특권의식으로 지배하려든가, 매스컴을 좀 탔다고 위세를 부리려고 한 것, 고위층의 누구를 좀 안다고 우쭐하였던 것이 다반사였다. 남보다 조금 다르다고 목에 힘을 주었던 것이 20세기였던 것이다.

21세기 새 밀레니엄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아모스 5:24).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민주주의요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정직과 진실이 통용되는 세상, 봉사와 희생이 우대 받는 세상, 인간성이 회복되고 존중받는 세상, 야합과 불의가 배제되는 세상, 분열과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성적순이 아니라 재능순으로, 일렬종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 세워야 한다. 무질서가 아니라 정중동 속에서 화합과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피터슨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랑이며,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동행이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실된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도와 주소서.

교회 예절

공중예배 기도(주일 대표기도)에 대하여

1. 공중예배 기도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회중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공중예배 기도는 중요합니다.
2. 공중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공동체의 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3. 공중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분은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어야 합니다.
4. 대표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중보기도 - 교회와 교인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해(특히 북한 동포를 위해),
     -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해
   - ■ 감사기도
   - ■ 특별기도(예) -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5. 가급적 피해야 할 기도 내용
   - ■ 예배를 위한 기도(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 이 부분은 예배 도입부에서 목회자가 기도하므로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회개기도 ; 목회자가 참회기도를 하므로 회개기도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참고사항
   - ■ 기도 시작시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불필요합니다.
   - ■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맺습니다.
   - ■ 시간은 3~4분이 적당합니다.
   - ■ 기도 중 '축복'이라는 단어보다, '은총' 또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 ■ 기도문은 미리 작성해 오셔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언부언할 수가 있습니다.
   - ■ 대표기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신앙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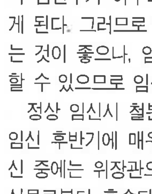
Q : 고린도전서 12:3에서 말하는 성령 받음과 12:8~11의 성령의 은사, 사도행전 1:5의 성령 세례를 어떻게 구별하여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장(場)은 반드시 인간의 내면세계만이 아닙니다. 이 우주 어디에서도 활동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의 기능직을 주십니다. 그 기능은 다양합니다(고린도전서 12:8~11).

그리고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 때 물세례와 비교하는 데서 구분 짓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례를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의 경우 그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인격의 깊은 변화가 있게 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상식



임신중 영양관리

한형장 집사(산부인과 전문의·21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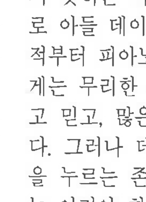
임신 중 특별히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히 영양분을 보충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임산부가 아무리 식사를 잘 하더라도 철분과 엽산은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는 철분과 엽산은 꾸준히 복용해 주는 것이 좋으나, 임신 4개월 전에는 위장 장애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복용해 주는 것이 좋다.

정상 임신시 철분 1일 요구량은 약 1mg이며 이 철분 요구량은 임신 후반기에 매우 늘어나서 평균 1일 6~7mg이 된다. 비록 임신 중에는 위장관으로부터의 철분 흡수가 비교적 증가되지만 음식물로부터 흡수되는 철분의 양과 체내 저장으로부터 유리되는 철분양을 합쳐도 임신에 의해 필요로 되는 철분 요구량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임신 후반기에는 철분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며, 모유 수유일 경우에는 분만 후에도 수주일까지 필요하다.

비타민을 추가 보충하는 경우 모체와 태아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도 비타민 추가 보충을 권하여 왔으나 추가 보충할 필요는 없다. 무기질과 비타민을 따로 복용한다고 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1) 임산부는 염분을 제한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의 식품을 섭취하여 체중이 최소한 9kg은 증가하도록 하고, 2) 산전 진찰때마다 식사 섭취상황을 조사하고, 3) 철분을 1일에 30~60mg씩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디오 감상



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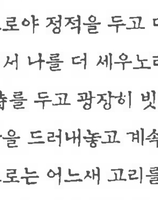
엄혜숙 집사(74구역)

이 영화는 자식을 통한 자기 보상을 애정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다. 데이빗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의해 외면당한다. 그는 보상 심리로 아들 데이빗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데이빗은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놀라운 재능을 보여준다. 어린 아이에게는 무리한 곡을 연습시키면서 자신의 아들이 천재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 또한 데이빗의 천재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데이빗에게 아버지는 바윗덩어리처럼 자신을 누르는 존재로 자리 잡는다. 항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되뇌이면서, 데이빗에게 피아노는 아버지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변한다. 데이빗에게 너무 어려운 곡이라는 데이빗의 선생님의 충고를 무시한 채, 데이빗의 아버지는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아들을 경연대회에 나가게 한다. 그 곡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과욕이며, 예상대로 데이빗은 수상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국 왕립학교의 장학생으로 간 데이빗은 그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아버지의 바램대로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수상을 한다. 그러나 연주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실려간 데이빗은 정신 이상의 증세를 보인다. 아들에게 요구했던 아버지의 욕망은 데이빗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기대에 못미치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이빗은 정신 이상의 상태가 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거벗는 그의 모습에서 얼마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는가를 보여준다. 정신 이상이 되어 한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들의 사진을 신문에서 본 아버지는 데이빗을 찾아온다. 아들에게 지난 날의 수상 메달을 목에 걸어주면서 아버지는 말한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망가진 아들을 껴안고 울던 아버지는 예전의 부자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대로 만들려고 했던 허영과 열정을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데이빗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여인에 의해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 정신 이상이며 벌거벗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는 자신과 결혼한 여인의 사랑에 의해 그는 회복된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데이빗의 아버지처럼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틀 속에 가두기를 서슴지 않는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거나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버리신다. 철저히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신다.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은 이 사랑에서 비롯된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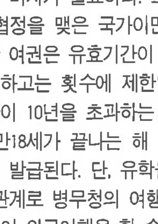


베드로

김라경(청년2부)

벗어나고픈 자리에 빗대기를 거부한 채
한나절 동안 어설픈 반기를 들고
나 한적한 곳에 다달을 동안
베드로야 정적을 두고 더 고기를 낚을 테냐
어디서 나를 더 세우노라
限時를 두고 광장히 빗대어 놓기를 마다 한다.
흉곽을 드러내놓고 계속 반기를 든다.
베드로는 어느새 고리를 둔 채로 마냥 기뻐한다.
베드로는 어디서 왔나
형상이 아닌 곳에 때아닌 반겨, 어디로 갔나
우리네의 시선이 집중한 곳
어디로 향하나 낚시를 던지는 베드로
넘실대는 곳에 다시 발을 디딜 것인가
베드로야 더 이상 발을 담그지 마라.

여행상식



해외여행과 여권

하승락 안수집사(5구역)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 항공권, 가는 목적지 국가의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목적지 국가가 우리 나라와 노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이면 비자가 없어도 입국할 수 있다. 보통 일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으나 여권의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남학생은 병역관계로 만18세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여권이 발급된다. 단, 유학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남학생은 병역미필 관계로 병무청의 여행허가를 받아 1년 만기 단수 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 발급된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해외여행을 하고 장롱 속에 여권을 집어넣고 여권 만기일이 언제인지 잘 모르고 유효기간을 넘길 수 있다. 2000년부터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여권기간 연장을 해주도록 여권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비자는 시일이 걸리고 첫번째 비자 신청할 때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재산이 많아도 가족의 월소득 관계가 불분명하면 비자를 받기가 힘들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여권과 비자를 여유를 두고 수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렘브란트의 아버지는 고난을 겪으면서 마음이 비워진 아버지이다. 거의 장님이 된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의 고난을 함께 겪으며 눈물이 바다와 같이 흐른다. 돌아온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손은 이해나 요구, 판단 혹은 비난의 손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고,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 오로지 축복하는 손이다.

- 헨리 나우웬 저 「탕자의 귀향」 중에서

예배 안내

1. 늦어도 10분 전에 예배실에 도착하시고 먼저 오시는 대로 앞자리 안쪽부터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예배실 기둥 뒤의 좌석을 일정한 시간까지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2. 비치용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신 교우들께서는 예배 후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각부 예배후 목사님의 축도와 성가대의 송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퇴실을 삼가주십시오.

4.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교구별 청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특히 남자 집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청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 봉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안내부)